

몽골과 기상협력 20주년 현대화 지원 사업 강화

- '제10차 한-몽 기상협력회의' 참석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5월 2일(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기상청은 몽골기상청(NAMEM*)과 △황사공동관측망 운영 △수치예보 기술협력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 NAMEM: 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and Environment Monitoring of Mongolia

기상청은 몽골기상청과 2003년 기상업무 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후 황사 공동감시, 수치예보 기술, 기상관측망 구성, 교육 훈련, 장기예보 분야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특히,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몽골 방문 기간 중 1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17~'19) 시 설치한 기상관측장비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몽골 황사발원지의 상태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황사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실시간 영상 제공 등을 요청하는 한편, 황사 예측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류와 교육 훈련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몽골의 풍하측에 위치하여 몽골의 기상관측자료가 매우 중요하기에, 몽골에서 관측된 다양한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한파, 황사 예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22~'25)인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번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몽골 현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 및 주변 지역에 32개소의 자동기상관측소(AWS)를 구축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 자동기상관측소(AWS) 20개소 추가 설치 △ 고층관측소 1개소 설치 △ 기존 및 신규 관측자료의 통합적 관리·점검을 위한 기술 설계를 완료하고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몽골 기상청장(Mr. Enkhtuvshin Sevjid)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몽골기상청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기상청에 감사의 인사” 를 전하면서, “기상청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한국기상청은 몽골기상청과 황사현상 감시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수치예보와 기후예측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몽골의 지상 및 고층 관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몽골기상청의 위험기상 조기 감시 및 예측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제10차 한 - 몽골 기상협력회의 및 착공식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마승완 (042-481-7320)
		담당자	사무관	공종웅 (042-481-7316)



| 협력회의 사진(오른쪽 유희동 기상청장, 왼쪽 Enkhtuvshin Sevjid 몽골기상청장) |



| 착공식 사진(왼쪽에서 세 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Enkhtuvshin Sevjid 몽골기상청장) |